夕刊
朝鮮日報
本紙特刊二十面

臺解散하고 來十一月十二日總選擧를 施行하는것은 그 人氣政策上 그럴것인데 나치스黨의 議員候補者는 … 에限한다하얏슨즉 一國一黨의 一層强化를 國際聯盟脫退로 因한 重大한 時局으로서 合理化할것이 看破된다。

三

獨逸의 脫退에 依하야 國際聯盟은 極東日本의 脫退와함께 五常任理事國中의 二理事國을 … 일케된셈이다 그러나 聯盟이 어려한 大國의 脫退를 … 接近化하니 米國의 將來參加等으로써 그 權威가 補塡될는지 또는 伊太利도 脫退할 氣勢를 보이니 迫頭하는 歐洲戰火中에서 自然消滅될는지 알일이어니와 엇더튼 現在狀態에서 佛國을 支持로한 國際聯盟과 對抗國인 獨逸의 脫退로 因하야 歐洲現狀維持에 重大한 不安이 더해진것은 否認할수업는 事實이다。

社說

獨逸의 聯盟脫退
國際政府不安의 表現

一

주네브의 軍縮幹部會에서 再軍備를 要求하얏스나 英米佛共同提議에 依하야 阻止된 獨逸政府는 數日前 그 代表 나드르니 氏를 召還하얏다는 報道를 接할 때에 吾人은 例의 힛틀러首相의 强硬政策의 片鱗이 엇더한 形式으로나마 軍縮을 中心으로 한 平和의 都市 주네브에 反撥될것을 豫想하엿드니 果然 獨逸은 軍縮會議脫退뿐만아니라 根本的으로 이 會議의 母體라고도할 國際聯盟까지를 脫退할것을 發表하야 豫想보담도 과한 그 急激하고 新奇한 想의 發生은 暫時 吾人으로 하여금 啞然한 感을 가지게한다 그러나 軍備平等權에 關한 獨逸의 軍縮會議脫退는 昨年九月에도 한번 잇섯든 일로 十二月十日 英米佛伊의 協定結果 原則上으로 平等權을 認定한다는 條件下에 다시 獨逸은 會議에 復歸하얏든것이다 그럼으로 今回幹部會의 權衡에 잇서 獨逸의 宿案인 他國의 水準에 近한 再軍備案에 拒否하는 反面에 英米佛三國은 도리혀 一、再軍備反對 一、漸進的軍備 一、軍備統制의 三項目을 再確認하는 決議案을 一般軍縮委員會에 上程하려고하는것은 實質上으로 軍備平等의 原則을 拒否하는 것임으로 그 目標로 揚言하는 힛틀러政府가 그 一部의 軍備制限條項의 改訂까지를 獲得치못하는 以上 軍縮會議를 脫退하는것은 體面上으로나 理論上으로나 當然히 잇슬 旣定한 事實로서 豫想된것이엿다 따라서 吾人의 注目은 前者보담 主로 後者 卽 聯盟脫退라는 新事實이 國際政局에 더지는 波紋은 高價의 意味에서 評價된다는것을 指摘함에 잇다

二

獨逸의 聯盟脫退에 對하야는 그것을 政府가 正式으로 決定하얏다는것을 안 以外에 아즉 詳細한 經緯를 알수업스나 그 直接導因이 軍縮會議에 對한 不滿에 잇슴은 豫想할수가 잇다 그러나 現存獨逸의 政治를 料理하는 힛틀러의 數年來의 根本主張이 벨사유條約의 根本的改訂에 잇고 이일이 업시는 獨逸國民을 貧窮과 戰勝國의 束縛에서 解放할수업다는것을 그 國民에게 向하야 反覆公言한 以上 論理的으로본다면 當然히 廢棄하여야할 第一端初 規約으로하고 他條項을 附帶基礎로하야된 國際聯盟에 聯盟國으로서 머물너잇다는것은 本來가 矛盾이 엇든것이다 이 矛盾을 敢行한者는 힛틀러로하여곰 말하게한다면 戰勝國의 聯盟과도 參加안해온 敗戰獨逸의 不滿表徵의 傳統은 에 드린 스트레제만의 罪라고 한다 스트레제만은 一九二六年 로카르노條約締結을 機會로 協調外交로 向하기爲하야 獨逸도 하여곰 聯盟에 加入케한 當時의 有名한 獨逸外相임은 一般이 周知하는 事實이다 엇잿든 힛틀러는 聯盟脫退로써 聯盟의 中心國인 佛國에 向하야 一矢를 던진것은 그로써는 當然한일이다 더욱이 이것은 總會로 國會 …

國際聯盟凋落의秋

『國聯과軍縮會議를 突然! 獨逸이脫退』

（聯合伯林十四日發至急報） 獨逸政府는 十四日 突然 國際聯盟을 脫退햇다 同時에 一般國際軍縮會議에서도 脫退햇다

國會를解散 總選擧施行

【聯合伯林十四日發至急報】 獨逸政府는 十四日特別大統領令으로서 國會를解散하엿다 聯盟脫退에 對하야 國民總意의 支持를 求하려는것으로 解釋된다

【聯合伯林十四日發急報】 突然히 國會解散을 斷行한 獨逸政府는 聯盟脫退를 基調로한 『히틀러』『파펜』政府의 內治外交히 政交政策에 對하야 十一月十一日을 期하야 總選擧를 施行키로 決定하얏다 國民에게 批判의 機會를 與하고저 하는것이다

◇힛틀러首相宣言◇

【電通伯林十四日發】 獨逸의 聯盟脫退에 關하야 首相『힛틀러』氏는 左와 如한 宣言을 發表하엿다

獨逸現內閣은 聯盟에서 一切의 投票를 許容하리라고 信하고 國際聯盟에 加入하엿고 軍縮會議에 參加하엿든것이다 然이나 其期待에 反하야 獨逸은 非常히 失望을 感하엿다 獨逸은 從來부터 軍縮의 意思가 잇섯슴에도 不拘하고 他國은 벨사유 講和條約에서 決定된 約束을 履行하려는 意向이 업고 一九三三年十二月의 軍縮會議에 잇서서는 獨逸에 對하야 軍備平等權을 承諾한다는 契約을 어긋슴으로 獨逸은 今回의 軍縮會議에 參加하엿스나 只今에 이르러 國代表는 現在의 獨逸에 對하야 軍備平等權을 容認할수업다고 我『노이라트』外相에게 通告한것이다 獨逸政府는 此로서 獨逸國民에 對한 不當하고 또 極히 不名譽스러운 差別待遇라고 看做하고 二等國으로 墮落되여서까지 如斯한 會議에 參加하는것은 獨逸의 國家的面目上 到底히 許치안는다 故로 大統領은 이問題에 關하야 政府의 政策을 支持하는 代議員을 選出키爲하야 總選擧를 施行하기爲하야 國會를 解散하게되엿다 余는 獨逸宰相으로또는『나치스』의 首領으로 世界平和는 制裁者, 被制裁者의 觀念을 解除하야비로소 到達할수잇다는것을 玆에 宣言한다

獨墺國境急緊張
獨逸의聯盟脫退와함께 俄然準戰時狀態化

【電通인스버(오스트리아)十四日發】 獨逸의 聯盟及軍縮會議脫退에 依해 獨墺國境은 俄然緊張해서 무시무시한 警戒狀態다 十四日은 終日獨逸國境의 防備를 强行해 『오스트리아』로부터 獨逸에 通하는 公道는 鐵條網을 치고 其他諸道에도 軍隊나 國防軍을 配備해서 國境通過의 通行人은 一一身體檢査를 行하고 通行車는 豫備의 다이야나 먼지떨이까지 檢査를 行하는 等 거의 準戰時狀態에 잇다

伊太利도脫退?

【電通제네브十四日發】 獨逸의 聯盟脫退를 따라 伊太利도 또한 同樣의 行動을 하리라는 風說이 傳하고 잇다

一事一言
長白山人

▣世界大戰二十年 一九一四年에 世界大戰이 勃發하야 二千萬生靈의 피로써 地球의 色彩를 變한지 바야흐로 二十年。將次 一九三四年을 마조하는 이 때다。

지난 二十年의 世界의 秩序는 國際聯盟과 共産主義와의 對立으로 維持되어왓다。對立이라하지마는 그것은 兩者가 다 國際主義라는 點에서 共通하여왓다。

이 二十年間에 …

▣國民社會主義라는 民族主義다 今日의『怪物』은 共産主義가 아니라 正히 파쇼, 나치스라는 各種의 別名을 가진 黑色, 橙色, 靑色等의 怪物들이다。二十年 國際主義에 對한 反動이 아모리 크다하더라도 … 그것이 지나간 뒤에는 다음 물결이다。… 리를 치고 하늘을 치솟는 밀어오는 물결은 民族主義 이 主潮는 마침내 政治 …

▣ … 宗敎의 領域에까지 … 一大 文化運動을 形成하고야 말것이다。…

『國民은奮起하라』
聯盟脫退後라되오로서 힛틀러의大獅子吼

【電通伯林十四日發】 聯盟脫退한케된힛틀러首相은 全國民에 對하야 라듸오를 通하야 激熱한 放送演說을 行하고 自國의 名譽와 正理를爲하야 敢然國際聯盟의 極惜을脫한旨를 告하고 全國民에게 一層의 奮起와 結束과를 促하야 左와 如히 述하엿다 그리고 右演說은 國境을 너머 英佛諸國에서도 聽取되엿다

不安時代 現世의 기록하야 모든文化運動을 하지아니치 못하게되엿다 獨逸人은 何人의 威도 與하지안코 오즉 名譽로自立하고십다고 願하얏슴에 不過함에도 不拘하고 世界는 吾人에 對하야 汚名으로써 中傷하얏다 吾人은 이에 介意치 안코 吾人이 貧하게 된 것 …

… 遂에 吾人이 가지 안 義務를 完全히 다하야 …

獨佛關係의決裂 聯盟無能을暴露
外務省當局의見解

【聯合東京電話】 獨逸에서 國際聯盟及一般軍縮會議로부터 突然脫退를 要求한데 對하야 外務當局談의 形式으로서 左와 가치 發表햇다

外務省은 아즉 公電을 接치못햇스나 一般軍縮會議에 잇서 獨逸對佛의 關係도 보아 獨逸이 軍備制限에 關한 不滿으로부터 脫退를 決行하기에 이르리라는것은 잇슬법한 일이라고 觀察된다 戰後歐洲의 國際關係는 벨사이유條約과 其他平和條約이 基調로 되기 때문 戰勝國은 大體滿足한 結果를 어덧스나 戰敗國特히 獨逸과 가튼 나라는 不平을 가지고잇섯다 獨逸國民은 活動力이 잇는 國民이니 벨사이유條約과 가튼 拘束을 不肯하야 어떠케든지 現狀을 打破하려고 애쓰는것이다 나치스政權을 確立시킨것도 그 活動力의 表現이니 나치스運動은 必然的으로 생긴것이다 그런데 나치스가 一般軍縮會議에 要求하는것은 軍備의 平等權이오 監督權의 廢止와 軍備에 對한 監督權問題는 佛側으로부터 提議되야 歐洲大戰後 暫間賦課되얏든것으로 最近또 그 復活이 計劃되기에 이르럿슴으로 獨逸은 斷然反對의 意志를 表明한것이다 그래서 複雜코 特殊한 獨佛間의 關係가 決裂되는것이나 아닌가고 생각된다。

國會總選擧는 나치스統一策

【伯林十四日發】 獨逸國會總選擧는 聯盟脫退에 關한 國民總意를 물으려는것으로 十一月十二日을 期하야 行하리라는바 힛틀러首相의 聲言에 依하면 一國一黨主義에는 조금도 變함이 업고 國粹社會黨에 對立한 諸政黨은 漸次解消시킬 方針이어니 何等變化가 업슴으로 今回의 選擧의 立候補者는 全部나치스黨員일것을 要한다는 方針이라 許可할것이라고 보인다

獨軍縮代表歸國

【電通(주네브)十四日發】 獨逸外相『노이라트』의 男은 軍縮會議議長『헨더손』氏에 對하야 獨逸은 軍縮會議로부터 脫退한다고 通告하엿다 그리고 獨逸代表『나돌니』男 一行은 今日歸國하엿다

『日蘇開戰은難免』
兩國國交緊張에對하야 모닝포스트紙의報道

【電通滿洲里十四日發】 去八月二十日부터 滿洲國西部國境을 調査하고잇는 滿洲國境調査隊는 終始蘇聯監視隊의 嚴重한 監視를 밧고잇든바 『알군』河는 流水가 渴되여 川府가 露出된곳이 多數하고 蘇聯側은 흐르고잇는 支流를 國境이라고 解釋하야 其支流를 下하는것은 國境을 侵犯하는것이라고 抗議하나 本流나 支流의 間隔은 넓은곳이 二千米에 及하는 곳이 잇는바 本流를 國境으로 할는지 支流를 國境으로 할는지는 來月에 開催되는 滿蘇水露會議에서 審議할터인데 滿洲國當局은 右會議에 臨하기 前에 蘇聯側解釋에 對하야 愼重調査中이다

世界週評

五相會議의對立

外交 財政 國防을 通하야 三位一體的國策을 確立코자 五相會議를 開催하야 오든바 六日第二次會議에 잇서 荒木陸相은 增稅를 主張함에 對하야 高橋藏相은 增稅가 容易치 못함을 陳述할뿐이 아니라 國防工作과 平和外交工作의 二元的國策을 主張함에 對하야 荒木陸相과 大角海相은 國防工作의 一元的國策을 陳述하야 五相間意見의 對立을 招致하얏다 그後十日第三次會議를 開催햇스나 五相間의 意見對立은 종치려 安協될 希望이 업고 다시 第四次 第五次會議의 開催를 보리라고 하지만 果然安協이 成立되기는 적지안한 疑問이니 五相會議의 進行如何로는 갓득이나 閣內不統一로 非難밧는 齋藤內閣에 對하야 그야말로 致命傷을 이루지 아니치 못한다。

多米輸入許可制

現行米穀法에 依하면 外米輸出入의 調節을 爲하야 課稅制와 許可制를 併用하는 同時 日本과 通商條約이 잇는 나라에 限하야는 許可制를 適用치 안키로 規定되야 잇든것인데 今番米穀問題가 複雜化함을 따라 一年約百萬石에 이르는 外米輸入이나마 徹底히 統制코자 十日閣議에서 全外米輸入의 全面的許可制適用을 決議하얏다。이것은 勿論 外地米移入에도 許可制를 適用하려는 前提가 아닌가하야 注目되는 同時 對日親善도 모하고잇든 暹羅에 向하야 感情을 觸할 憂慮가 잇슴으로써 全外米의 許可制適用도 多少의 難關을 가지리라고 보인다。

蘇聯報告書公表

去月二十八日 駐日蘇聯大使『유레네프』氏는 廣田外相에 對하야 日本軍當局이 北鐵奪取의 陰謀를 抛棄치안는다면 거긔 對한 陰謀를 發表하겟다고 通告하더니 八日『타스』通信을 通하야 日本側의 秘密報告書四通을 發表하기에 이르럿다。그 四通의 報告書는 모다 蘇聯에 對한 日本의 對策을 意味한다는것으로 外務當局은 그 發表를 極히 愼重히 하고잇는바 近來北鐵交涉을 中心으로 日蘇間關係가 자못 險惡을 드러내게된 그 發表로 보아 兩國의 關係는 우리의 推測하는 以上으로 險惡해 잇든것을 알수가 잇다。更히 極東方面에 向하야 空軍을 增强하고 또 蘇聯은 極東方面에 向하야 … 그대로 低迷해 잇다。

內蒙古獨立計劃

蒙古王德親王은 滿洲建國以後 內蒙統一을 企圖하고 잇든바 去月二十八日 約十萬의 兵隊를 獨立三個師로 編成하는 同時 內蒙獨立의 宣言을 發表하얏다。그 消息을 接하고 國民政府側에서는 크게 狼狽하야 來二十日頃 內政部長黃紹雄 蒙藏委員會委員長趙丕廉兩氏를 當地에 特派키로 決定하얏다。

暹羅國內亂勃發

暹羅王族의 一人 보레마아고씨는 十二日突然叛亂을 이르키어 山間地方에 잇는 步兵二個大隊를 거느리고 國都盤谷을 向하야 進軍하얏다。叛軍의 氣勢는 相當히 强하야 이미 盤谷을 距하기 八哩밧게 남지안핫스며 目下盤谷에는 戒嚴令을 宣布되야, 武裝兵으로써 諸國大使館 銀行等을 守衛하고 잇다。

西班牙內閣改組

西班牙에서는 三日 레루內閣이 辭任하고나서 各黨의 對立으로 組閣難에 빠저 잇더니 急進社會黨領袖 바리오스氏가 사모라大統領으로부터 擧國一致內閣의 組織을 委囑바닷슴으로 最左翼인 社會黨一派만을 除外한後 各黨聯合의 協力內閣을 組織하기에 이르럿다。

獨聯盟脫退決定

二個月間 休會中에 잇든 軍縮會議는 九日로써 위선 그 幹部會를 열고 다시 뒤미처 一般會議까지 열리라고 하든바 幹部會席上에서부터 佛獨의 論戰이 尖銳하게 들어나매 十四日 獨逸의 히틀러政府는 드듸어 聯盟脫退를 決定하고 國民總意의 支持를 求코자 國會의 解散까지 斷行하얏다。이로부터 聯盟의 權威도 致命的傷處를 바들이 업지안커니와 佛國及그 宗主權아래잇는 小協商諸國은 獨逸에 向하야 極度의 敵意로써 對하게 될것도 事實인즉 歐洲의 風雲도 날로 險惡化된다。

八面鋒

◇『벨사이유』條約破棄를『모토ー』로 進軍한 褐色宰相, 國聯의 椅子를 斷然一蹴。

◇屈辱의 갑두를 쓰고 臥薪嘗膽한지 十有六年, 二元工作을 버리고 一元工作을 取한은 豫定『코ー쓰』。

◇東에 荒木, 西에『히틀러』。하나식 늘어 退席者가 생기면 國際聯盟은『湖畔』으로 解산 文人騷客의 風月材料나 될가。

◇날시가 선득선득하니가, 感氣도 들기 前에『마스크』를 대고 다니는 축이 못되 못되보인다。

◇世相이 애롱대롱하니가, 戰爭이 나기도 前에, 瓦斯『마스크』가 얼마나 식이나 하느냐고 뭇는 축이 잇다。

◇『스핑스』의 角度가 마젓다든가, 明年이 甲戌年이라든가 엇재 좀 기도 前에 벌벌 떨니는 듯도 십다。

人事・集會

▲李範仲氏 冷洞五七自宅에서 十四日에 喪配

宇垣總督動靜 晋州에서 東萊에

宇垣總督은 十三日午前八時半晋州를 出發하야 途中咸安水利組合管內와 慶南水利組合及下南水利組合管內의 水害狀況을 視察하고 金海邑에 到着하야 訓示를 하고 金海郡進永面事務所에서 中食을 한後 金首露王陵에 參拜한後 一路東萊郡海雲臺溫泉에 向하는 途中 大渚水利組合管內의 水害狀況을 暫間視察하고 午後六時半海雲臺溫泉館에 投宿하엿다 十四日은 一日靜養하고 十五日은 密陽 金泉等地를 視察할 豫定이다

日曜氣配

◇株式=當面의 日中問題打開期待에 押目人氣이나 一方日獨關係懸念와 獨逸의 聯盟脫退에 伴한 歐洲政局不安에 氣迷가 深하야 波瀾이 豫想된다 氣配鈍重

大新	一一八、〇〇
鐘新	一二五、〇〇
日産	一二二、〇〇
東新	一九七、五〇

◇期米=大政策期待로 莫上莫下氣勢, 二十日頃發表될 公定格定으로 기다리고 目前不變, 氣配不變(大阪天候晴天)

◇綿糸=氣配鈍重

本報號外發行

本紙는 十四日夜獨逸의 聯盟脫退에 關한 號外를 發行하야 市內讀者에게 配付하엿습니다

今日本紙四面

巡査看守(講義錄) 米 … 朝鮮警務學會 京城永樂町二ノ三〇 本一一一三〇

忠臣 學生服 卸商 坂野合名會社 京城黃金町 …

如神膏 切傷、打傷、凍瘡、汗疹、火傷 … 定價 貳拾錢 北辰堂賣藥研究所

職業 … 大阪天王寺區 …

대하중에 오기나球

大阪着名問屋案內

冬物洋服品揃 羅紗製品 卸商 限商店生地見本相場表進呈 大阪市谷町一 石尾仁本店

ステッキ パイプ 卸商 現代的趣味に最合 … 井村友三郎商店 大阪市東區北久太郎町四丁目心齋橋筋 振替大阪一二三八九〇番

勞働 セーラー 乘馬ズボン 洋服各種 製造卸 若原重商店 大阪市東區內本町二丁目

十錢廿錢均一品卸 一般雜貨及高級冬向物品揃 日本百貨均一卸協會 大阪市東區北久太郎町二丁目

冬物品揃 毛綿 メリヤス オーバ セータ 手袋・沓下 佐野繁松商店 大阪市東區南久太郎町四丁目心齋橋筋

本社創立大正十三年 唯一無二調査機關 個人身分調査 商品時勢調査 和解整理代理 債權取立一切 社長 高 … 大阪相互通信社

七百名檢擧하엿다가 六百四十名釋放

留置中의六十名은尙今取調中

北靑大檢擧事件後報

지난칠월중순부터 함경남도경찰부고등과에서 북청(北靑)을중심으로 대검거를한 사건은일시각지에서 쪽한최 경거를보여전후 칠백명에 갓가운청년남녀들이 검거되엿섯는데 그동안십개월에 밤낫을 헤아리지아니하고 취조한 결과전부 석방되고검거인원의십분지일인 륙십명이 남어잇서 상금취조중이라 피검된사람중에는 취조중에 불행히 사망한 사람도 잇섯다 하며일월 칠일 경찰에서 검거압송되엿든 장일환(張日煥)씨는 십개월만인 지난십이일에 이르러 백반되엿는데 류치장에서 건강에 큰지장을어더 방금북청읍에서 료양중인데 건강이회복되는대로 곳경성으로 도라오리라는 소식이 시내모처에 도착하얏다 한다

大塚教授에 四年役求刑

【동경전화】 동경상과대학(商科大學)교수로잇든대총금지조(大塚金之助)씨에대한치안유지법위반(治維法違反)사건은동경공소원(控訴院)에서 소중(小中)재판장 판본(坂本)검사 당임으로 십리중십사일오후두시반사실심리를 마치고 검사로부터징역사년의구형이잇고니어서 변호인들의 감형론이잇섯다

安東縣無電臺

十七日부터事務開始

【신의주】 만주국군정부(軍政部)에서는그간무선전신망(無電網)을계획중에잇던바 그의일부인 안동현무선전대는 안동현공서(縣公署)압헤서우게되야지난칠일부터 사무를개시하엿고 봉천성내에 산재한 무선조재지는 아래와갓다

奉天 營口 錦縣 黑山 遼源 洮南 開原 海龍 通化 臨江等各縣公署에設置

鍾路署活動繼續 又復五名을檢擧

深夜、休日不拘코取調進行

事件內容去益擴大?

상금시내 종로경찰서에서 검거에착수한사건은 아즉도 끗질줄을모르고 갈수록 확대되여십사일에는 모처에서 청년다섯명을검거하야 밤집도록 취조하더니 십오일아츰에 이르러서는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다시모처에서 청년한명을검거하야다가 류치시키고취조중이다

汽動車廢止코 蒸汽列車代用

려객격증으로

철도국에서 최근려객이 격증한 까닭에 종래의긔동차로써 운전하든 다음의렬차를 십사일부터 당분간 증긔렬차(蒸汽列車)로 밧구기로하얏다 그리고 경성의정부(議政府)간에는 룡산(龍山)발오전다섯시로 동오십삼분에 의정부에도착하는것과 의정부발오전여섯시사십오분으로경성에동일곱시사십이분에도착하는 한왕복의림시긔동차를 더운전하리라한다

▲大田京城間 第九〇七、九〇八、九一〇列車 ▲大田天安間 第九〇九列車 ▲天安京城間 第九一一列車 ▲京城土城間 第九一九、九二〇列車

가을의微笑

昌慶苑菊花展을 德壽宮서開催

창경원선단풍전개최

해마다 금강산의 단풍소식이들려올때면은 서울에는 창경원의 국화(菊花)소식이 피곤한 도회의 청각(聽覺)을 간즈리엇다금년도십월이벌서반넘어저낫고풍악(楓岳)의홍엽이소문놉흔지오랫는데 창경원의 국화는엇지나 되엿나?금년은오래동안침묵하고잇든덕수궁(德壽宮)이 개방됨을따라창경원의국화를모다덕수궁으로옴기여노코매년창경원에서열든국화전람회(菊花展)를더하야다그리하야 시내에서 단풍은창경원으로 국화는덕수궁으로 각각는우워지게되엿는데 덕수궁의 국화는아주현상으로는임래야오는이십한사오일경에나피기시작하리라다

新貨幣

自十六日出現

【전통동경전화】 벌서전부터조폐국(造幣局)에서 제조중이든『니켈』화폐는십륙일부터시장에나오게되엿다 우선십전자리 사십오만원 오전자리 십오만원도합륙십만원인데이니켈화폐는일본은행보관지점에서 대리정등창구를통하야 퍼저나갈터이다

朝鮮神宮大祭

래십칠일에거행

십칠일은 조선신궁대제(大祭)와경성신사의 가을제사를 지나는날이다 각동리의아희신여(神輿)등여러가지 가장행렬이이십오종이나 잇서서종은 상당히복잡할모양이다 행렬의 로순은십칠일은 오전구시 경성신사를떠나 대화정(大和町)으로본정(本町)을돌아 남대문통으로경성부청압통으로 경성역을지나 삼판통(三坂通)을거처룡산으로 나가고시십칠일은 룡산경찰서압헤서떠나 시내로들어와 종로부압으로돌아나갈터이다

新興電料問題 會社側이讓步

【신흥】 함남신흥군의전등료는 조선질소회사에서 신흥여수권공사를 이르킬당시에 그회사당국에서 교부한각서에 의하야 이래 삼년을두고 그감하운동에 로력하든중 쌍방의의견 불일치로 군민대표로부터 회사당국을 상대로 고소까지케긔할 경우이엇든바 회사당국의양보로 한등에시전표준으로 감하하기로 하야겨우락착을 지엇다는데 이케

京雄線開通

【신경십오일발】 만주와 북조선을 련결하는신경웅긔(新京雄基)의경웅선(京雄線)이 칠백『키로』의경웅선(京雄線)직통의웅기항의 처녀렬차께 오십일오는십오일오전여섯시삼십분웅기를향하야 떠낫다 전선직통을 보면 소화칠년오월 돈도선(敦圖線)의 전선을 구로는아 십일개월간에 완성을 보고소화팔년오월에가영을개시하야십월십일경장(?)길돈선을 완전하야 경도선(京圖線)이라고개칭하고 직통렬차를 운전하다십오일에다시 웅긔까지 련설하게되것이다 이째 일본과의거리를보면 기선도의 계통으로아래의비교와가티 머다단축되엿다

▲新京─大阪(單位키로)

雄基經由	一、七三一
大連經由	二、四〇一
釜山經由	二、三一九

▲新京─東京

雄基(敦賀經由)	二、〇八五
大連經由	二、九六一
釜山經由	二、八八七

▲新京─名古屋

雄基(敦賀)	一、七〇八
大連經由	二、五九一
釜山經由	二、三一九

신구요금(新舊料金)을비교하면 다음과갓다고한다

	舊	新
十錢光	○、六八	○、大四

(其他各等도同級以下) 寢臺料七十錢을五〇錢으로 急行料一〇錢을廢止키로

短刀强盜와格鬪

元山刑務所後山의一場活劇

저항타못해강도가도망

【원산지국전화】 십사일밤여덜시경 원산형무소뒤 신작노로덕원군적전면상하리(赤田面常下里)홍석열(洪錫悅)(동)이라로인이 지나든중 약삼십세가량되여보이는 로동복입은청년이나서면서 단도를견우고 돈을내이라고함으로 그는 단연항거하야 도적은 칼로하부로찔너 대이는것을 맛자드고 마츰내도적이 가젓든칼을 빼아서 가지고 달러들러고 하엿섯스나 도적은 그대로 도망하여버리엇다 이격투속헤 그는원편가슴과 우편억개와 얼굴에 여러곳의 칼을 마저상처를 만히입어 곳부립의원에입원하야 치료중인데 생명이 위독한중이고 원산경찰에서는 비상경계망을 느리우고 범인을 추격중이나아직까지 체포치못하엿다

私生兒認知訴訟

달콤한 말로꾀여서 실컷상관하고서 아이를나코나니 시침이를떼고 모른체한다하야 시내다옥정(多獄町)일백륙십칠번지김정옥(金貞玉)이라는 젊은녀자는 신태악(辛泰嶽)변호사를소송대리인으로하야경긔도리천군창전리(利川郡倉前里) 김룡준(金龍俊)을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경성지방법원에 제긔하엿다 원고는 작년에 김룡준과 관계를하엿는데 금년일월오일에 딸을나핫는데 피고는자긔의딸이라고 인정하지안코 공연히 남의주상하는소리를 듯고 우롱주저하고이의 소송으로 해결하고자한 것이라 한다

自働車顚覆하야 七名重輕傷

滿浦線開通式의慘事

【평양지국전화】 만포진선(滿浦鎭線)개천구장(价川球場)간이십오키로는십오일부터개통되야 업무를개시하게되엿는데 당일구장에서는평북녕변군룡산면(寧邊郡龍山面)과그곳번영회와의 공동주최로 오후한시부터 성대한개통식을거행하게되어 참렬자를수송하노라고 자작연(自作聯)에련결하는승합자동차가 동익에향하야진행중 오전십시경 도중에서 잘못되여 굽히약한간반되는언덕에서굴어나려승객중칠명의중경상자를나이엇다

論山小作組合에 警察이解散命令

조합경영의야학새지해산시켜

八十兒童은就學茫然

【대전】 강경경찰서에서는론산군양촌면(論山郡陽村面)소작조합간부신표청(申杓淸)리상철(李相喆)등 륙명을검거하야 엄중취조중이라 함은긔보한바이어니와 동서에서는 십일에피검된사람은 전부놓너 내여다노코 소작조합(小作組合)을해산하는동시에 소작조합에서 경영하는로동야학새지도 단연해산하여야석방하지 그렇게안으면 내노치 안는다고 함으로조합간부들은 전부해산하겟다고 승락하고 석방되야 집으로돌아갓고 다치후로 해산의 운명에빠진동소작조합은 대구(大邱)부호 리장우(李章雨)씨가대정십사년에 론산조양일대와 련산면일대에 륙칠백석이나 추수하는 토지를 사가지고 횡포한 사음(舍音)에게맥기여 너무나 무리하게소작료를증수하며 일방으로는 사음이제마음대로 소작권을 매매하는등의 말할수업는회포가너무나심함에 견듸지못하야 그곳소작인들이 모이여 최초소작계를 조직하엿든것이래 소작권은 지주의마음대로 이동하지 못하게하고소작료도 상당하게 하야가지고 한사람도미수업시 지주에게납부하는등의 만흔 력사를가진바이며 로동야학은 그조합에서무산아동을 위하야 경영하여나려오든바 팔십여명의 학생을가르켜 나려오든것이엿섯다는데 인케는 맛츰내 폐쇄하지안으면 아니될운명에 빠지게되여 배울내야 배울수업는 팔십여아동은 눈물을 어린가슴에먹음고배움의길을차즈려방황하는중이다

玄濟明先生의 靑春名曲
콜럼비아의大英斷 朝鮮樂의世界舞臺登場
Columbia
◇…山田耕作指揮 ◇…東京交響樂團伴奏
도리고作 세레나ー데
되커ー리스作 도라오라쏘렌토로
四〇〇五〇番

天氣豫報

晴一時曇

七百七十二粍의高氣壓은北中國에서朝鮮半島에퍼지고 本州方面은氣壓이낫다 南朝鮮과東海岸은大槪晴天이오 其他는天氣가조코靜穩하다 明日

昨日最高	二一、一
同最低	九、三
正午	一七、九

僞造幣一千萬元 滿洲에散布코저輸送

장개석이만주국경제교란코자

義勇軍後援團長시켜

【전통봉천십사일발】 천진(天津)에서모처에 도착한 정보에 의하면 장개석은 계속하야반만항일(反滿抗日)의목뎍을 가지고 만주국경제계를 교란식힐 목적을가지고 얼마전에 상해에서 제조한위조 국폐일천만원을 진일의의용군 후원단장에게 명하야 천진에서 영구(營口)로 실어보내서만주국내에 산포토록 명하엿다또한편으로 십복부하에게 오십만원을 주어의보과 만주국요인을 암살토록명하야 부하수명과가치 십일전일을 떠나산해관(山海關) 방면으로 만주에들어가가지 반만분자와 련락하야 활동을 개시하엿다는 확실한보도가잇서 일만관헌은 이을철통의화근을 절멸식히려고 경계중이다

文化刺繡講習會

◇會期 十月十六日부터十日間(每日午後一時부터四時까지)

◇場所 鍾路女子青年會館

◇會費 五十錢

◇講師 金永愛 李慶順 兩氏

主催 京城女子基督青年會

後援 朝鮮日報社學藝部

神宮陸上競技 各道青年對抗

金光旭…?一森
李濟■…?一笹田

朝鮮神宮競技第七日 陸上競技各道青年團對抗戰은 十五日午前九時부터 京城運動場에서開幕되엿는데 正午까지의經過는 다음과갓다

【百米第二豫選】 ▲A組 1•矢野(慶南)11秒3 2•金憲俊(黃海) ▲B組 1•■明球(慶南)11秒3 2•金昌念(黃海) ▲C組 1•金萬式(平南)11秒3 2•田中(慶南)

【四百米第二豫選】 ▲A組 1•吳相奭(慶北) 52秒1 2•韓敬圭(黃海) ▲B組 1•吳泰環(平南) 54秒4 2•金泰淳(全北) ▲C組 1•韓新相(黃海) 53秒1 2•金明煥(忠南)

【千五百米豫選】 ▲A組 1•金鍾漢(慶南)4分22秒4 2•劉俊燮(江原) ▲B組 1•金連石(全南)4分17秒4 2•柳長春(咸南) ▲C組 1•金德周(黃海) 2•梁任得(慶南) 3•李常榮(平南)

【砲丸投決勝】 1•土肥(慶南)11米642•金鍾俊(慶北)11米59 3•山林(咸南)11米10 4•橫井(平北) 10米88 5•仲至(平北)10米85 6•川上(平南)10米79

【八百米리레 豫選】 ▲A組 1•慶南軍1分35秒 2•平南軍3•咸南軍 ▲B組 1•江原軍1分38秒9 2•全北軍3•咸北軍

【百米決勝】 1•金昌念(黃海)11秒4 2•■明球(慶南)3•矢野(慶南) 4•金憲俊(黃海) 5•金萬式(平南) 6•田中(慶南)

【千五百米決勝】 1•金連石(全南)4分15秒3 (本大會新記錄) 2•柳長春(咸南) 3•梁任得(慶南) 4•文允善(平南) 5•金鍾漢(慶南) 6•■有鎔(慶南)

【走高跳決勝】 1•山本(忠南) 1米82(朝鮮新記錄) 2•前園(慶北)1米82(同上) 3•永富(平南) 1米78 4•森田(咸南) 松田(全北) 1米75

軟式庭球 各道對抗

正午까지의經過

一般軟式庭球團體各道對抗戰은 十五日午前九時부터開始하엿는바 正午까지의經過는 아래와갓다

【第一回戰】

【忠南】勝 【江原】

○{荒川 森川}4─0{河野 我妻}×
○{尹昌爀 梁昌南}4─1{張德周 李春得}×
○{姜禮元 朴東善}4─1{金南薛 朴敬秉}×
張規均─棄─我妻
金應培─棄─李春得

【京畿】勝 【忠北】

○{李大男 矢田}4─0{金永振 朴龍來}×
○{嚴秉律 楊福仁}4─0{金延浩 張在伯}×
×{坂東 朴龍植}3─4{朴星隱 韓一東}○

【單式】

○楊仁福 4─1 張在伯×
藤澤─棄─朴星隱

【京城】勝 【全南】

○{洪承武 朴龍善}4─0{姜在鎬 姜在模}×
○{張元珍 孫龍星}4─1{張義烈 金俊鉉}×
○{島川 渡邊}4─3{金奧斗 文俊午}×
朴龍善─棄─張義烈
崔永生─棄─姜在鎬

【黃海】 【全北】

○{吳澤浩 金應泰}4─1{趙龍學 淺野}×
×{吉武 鈴木}3─4{岩谷 吉本}○
○{服部 若泉}4─2{中山 李}×
×金應泰 3─4 趙龍學○
鈴木─?─淺野

【平北】 【慶北】

○{李濟國 梁在律}4─1{黃基成 崔建浩}×
×{金光旭 金聞憲}1─4{駒井 松永}○
×{張聖均 趙東勳}2─4{笹田 土井}○

【單式】

學生關東日本對拳朝

負勝無鬪拳抗對

金昌燁・李奎煥・勇躍

【東京電話】 朝鮮拳鬪俱樂部對 日本關東學生選拔軍拳鬪戰은十四日午後六時부터 番外競技入組의試合이끗난後 待望의大試合은展開되엿다 ◇푸라이級의 朴春緖은明大小倉을相對로始終攻勢에 나가스나無勝負로判定되고◇빤탐級의金昌燁은 明大佐佐木을KO로餘地업시물니치고◇페터級의金鴻浩은 日大高橋와對戰하야判定으로앗갑게敗하엿고 ◇朴龍辰은日大龜岡에게 亦是判定으로敗北後 朝拳軍運命을決하는李奎煥對 明大三好의對戰은三好苦戰을못익여 KO가되기前途中에棄權을하여버리니 結局總得點2•5、2•5로同點되여無勝負로마치엇다 그러나 全成績을미루워보와 朝拳軍이優勢인것을證明하고잇다

△朴春緖 無勝負 小倉(明)△
○金昌燁 K O 佐佐木(明)×
○高橋(日大) 判定 金鴻浩×
○龜岡(日大) 判定 朴龍辰×
○李奎煥 棄權 三好(明大)×

中等籠球決勝

光成優勝

中等校籠球決勝戰 平壤光成高普對道立商業試合은十五日午前十一時十五分부터 開始한바 44對33으로光成優勝하엿다

【準決勝戰】
光成(勝)─京師(敗)
道商(勝)─東萊(敗)

【決勝戰】

光成44 {26─14 18─19} 33道商

【光成】		【道商】
李錫華 魯永孝	F	朱丙鐵 金鳳綱
金光鉉	C	金鶴權
金青山 高山翰	G	兪大澔 李駒歐

20 FG 13
4 FT 3

嶺雲詩集 빗나는地域 今日出現

毛允淑女士著

春園 李光洙先生 序
[illegible] 金活蘭博士 序

朝鮮詩文壇의燦爛한最高峯의巨篇!!
朝鮮詩壇의乳母!! 文壇史上의警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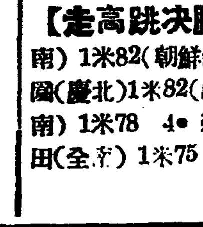
著者는 果然 朝鮮에잇서 處女地에가까운 詩文壇을爲하야 多年間 純粹的心血을 傾注하야서 天才的素質에서 發流된 그雄健한 詩想과熱情한精巧는 實로 獨步男辭의征勢로 超邁的展開는 全詩文壇을 一齊히 變情하게하는 感을주고 그억세고 深根한情想과 主義思索에 詩化的謳歌는 過去의詩文壇에서 夢想도못하든 一大傑作의巨篇이다。 著者가 執近의所藏한 千餘篇中에서 眞心의名作만을 嚴擇蒐集하야 그學究的價値와 人生裏面에 赤裸的象徵과 民族的熱情에 넘우며옴으는 藝術的力量을 朝鮮藝土에 敢然이獻呈하기로 約束하엿다。 이詩集一卷이야말노 前人未踏의境地를 開拓하엿고 朝鮮文化史上의軌道를 鮮明이하여는 重實의高塔이오 朝鮮詩文壇의 乳母인同時에 題名그대로의 (빗나는地域)을 實現革成化하며는 最高絕唱의 前奏曲이다。 第四章으로 分類된 百餘篇의 巨大한名篇이니 女流文士로서 朝鮮에 最初의 悲慘한現狀을 痛憤이絕叫하고 오로지「밝는일날」을爲하야 神格的良心에서 發露된嚴然한 理念과 正直한水準을 目標로한 神人共歎의 燦爛한文章과 赤血이 躍動하는 青春의 熱情的詩緖이다。 果然 讀後感想의 賴呼賞讚이 半島江山에 宛然이 衝天할것을 끝이 믿는바이다。 이一卷의詩集을 文學을갓추어 사랑하시는 四海僉位前에 삼가올며 淸鑑의 光榮을企待하는바이다

그늘진天國 (이땅의魂을 멀니부르고잇는 先祖의넉을詩化하야써 우리의生靈을深刻케하는悲憤篇!)
極樂水 (人生의不生을 沙漠의巡禮者와갓이 作者는生命水의 渴望이끈일수없어 希望을부잡고 喜우는歡喜篇!)
빗나는地域 (이江山 이하늘을 無窮한未來속에 幸福의樂地를 動向케한抒情詩의激動篇!)
푸른寢室 (靑春의感情에서 매한一便作者의 崇高한殿堂篇!)

最高의優雅美麗한豪華版 (著者寫眞入)
英國產純白色滙入라후紙使用、金文字入、銀陰刻畵、總크로쓰布表裝幀、品格體裁는他冊의無比! 四六版二百三十餘頁 (定價九十錢) 送料六錢

發行所 京城府西大門町二ノ一三九 株式會社朝鮮彰文社 振替京城一八三四〇番
總發賣所 京城府鍾路二丁目八二 博文書館 振替京城二〇二三番

來十月十七日은祭禮奉祝休業합니다
昭和八年十月
鍾路通 和信商會
本町 三越
本町 三中井
本町 平田百貨店
南大門通 丁子屋


製繩機 稻扱機 特價謝恩 (カタログ進呈)
電話西四二〇六番
大阪市港區九條中通三 日本海光社

朝鮮劇場 (光)二二八二番
十月十五日낫부터 超特別大興行
R・K・O社超弩級映畫全世界驚駭
本版 恐怖映畫『킹・콩』 十一卷
五十尺의怪獸 五十噸의巨物 突然紐育市街에나타나 닥치는대로부서진다 橋梁鐵道가破壞되고 빌딩이뭇허지고 自動車와飛行機가한주먹에조각이난다 興味의極致。激激의交錯 怪獸의暴威
R・K・O社超特作
도로레스・델・리오主演
哀戀悲詩 南海의劫火 十卷
우리는 일즉이이러케아름다운詩를본적이업다 이것은 못다푼南海의처녀! 조고마한섬에서 이러나는 白人과 有色人의恨만흔사랑!
同時封切特別料金 마라미온트社超特作映畫 全十卷

第一劇場 (光)一七五五番
十月十六日낫부터 秋期特選映畫公開
每日二回 낫一時 밤七時半 開映
大衆料金 階上十錢 階下十五錢 均一
大活劇 로돈의妖盜 全六卷 러스리・후ー바氏主演
大活劇 桃色의處女 全七卷 米國映畫社超特作品
世界的名畵 도로이가 全十卷
大名畵

桃花劇場 (龍)一三三三番 麻浦桃花洞
十月十四日부터 劇團市場 第一回大公演 第四週
結婚戰線 異狀업다 全一幕
喜劇 夫婦行進曲 全一幕
鄕土劇 섬處女 全一幕
十月十六日부터 大公演
諷刺劇 百合隊 全一幕
洋劇 三色旗 全一幕

謹告
今十八日午後二時 結婚式을擧行하오니 ...
朝鮮人 ... 代

負債잇는農家의 小作權을剝奪

차압당하면지주손해라고 雪上加霜의悲劇

支拂命令 三千件 差押의 定州

【定州】 지불명령 이일천사백오십사건 차압에 일천사백십륙건 이것은 금년구월까지 정주법원지청의 통계이다 지불명령과 차압의설황이 틀림듯하는금월에 악덕지주가 발호하야 남의부채가잇는 소작인의 소작권을 박탈하고 또는보증인을요구하는 괴현상을 나타내고잇다 채무에못니겨 피땀흘려지은곡물은 모다헐도매로 차압을 당하고 소작권까지 박탈하는빈농민의참상도 점점 늘어가는현상이다 이제그자세한 사실을 조사한바에의하면 소작인이 할도또는로적(積債)차압을 당하면 지주의 소유분까지 지주는 무리한희생을당한다는것이다 금년에도 이런 착잡한사건이 만히생기엿스며 또한권리와가티 소작권 박탈한 악덕지주까지 생기엿다 그러나 소작인이차압을 당하엿다하여도 지주는명영 희생되는것이아니고 다소괴로움이 잇슬뿐이니 우려할바안임으로 반성하고 안심하기를 바란다고한다

『地主의沒理解』 法院支廳 崔允權氏談

이런사건에대하야 정주법원지청 최윤권씨는 왈방한괴자에게다음과가티말한다

『네! 그런사건이 요사이도 매건잇습니다 그러나 지주로서는우려할바 안입니다 아모리차압을 하여도 대차관계의 우선권이잇스니와 지주는 매년요구만하면 됩니다 다소시끄럽다고 소작인의 생명선인소작권을 박탈함은 지주들의 벌률의 곡해도그럴듯하오니 귀지를통하야 광비케하면 그런폐단이 업서질듯합니다』 다는운운

婦人夜學設置

【定州】 정주군이산면원리(伊山面院里)에잇는이산부인회에서는 각방면으로 사업을진행하는중 지난십월십일부터 동회관에서 계몽운동의 부인야학을 설치하엿다는데 학생수는 현재가 십여명에 달한다하며 교수과정은 한글과 산술등이라한다

十四時間勞働에 勞賃三十餘錢

統營上水道工事場에서

【統營】 경남도당국의보조로써 총공사비십만원으로 통영상수도 현재오천석수지를 압흐로는 매일일만오천석의저장지(貯藏池)로확장한다함은 긔보한바어니와 동공사를경성간조(京城間組)에서 륙만구천팔백원에락찰하야 래년삼월중에 준공할예정으로 지난구월이십일에 긔공하야 방금공사를 진행하는중인바 매일인부사십여명을 사용하는데 하루십사시간노동에 로임(勞賃)최고삼십오전식이라한은 누구나 불평을가지지 안을수업다 그로동자들의 가정을본다면 대개가 오인의 가족을 다리고잇는데 한사람의생활에도 충당치못할것이며 더욱이 객지에서온 로동자들은 하루세끼의 식비삼십전식을 지불한다는데 만일이삭할만 비가오면 남지지 오전이란것은 간곳업고 날로늘어가는것이 부채뿐이라한다

徐炳和氏等 選擧違反事件

覆審에서無罪

【大邱】 경북선거계에만흔센세이순을 이르키여 주목되고잇든 달성군출신 경북도회의원서병화(徐炳和)씨외다섯면면장에관한 선거취체규측 위반사건은 십이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송하(松下)재판장으로부터 피고전부에대한 무죄판결로 일단락을지엇다 피고중 성서면(城西面)장김학곤(金鶴坤)씨만은위증교사죄로 징역륙개월 이개년집행유예의판결을바덧다

〈鎭南浦幼稚園聯合園遊會入場式과 三幼稚園의遊戲光景〉

鎭南浦幼稚園 聯合園遊會

盛況으로閉幕

【鎭南浦】 진남포아동현회주최와동아 조선중앙 본보삼지국후원으로 진남포유치원 련합원유회는 예정과가티 지난십이일오전열한시반부터 룡정리 공설운동장에서 열니엇다 가을을 재촉하든 추운바람도 어느듯사러지고 봄날가티 다뜻한천백일와래 득신유치원을 비롯하여 억량리(億兩里)보성(保聖)비석(碑石)삼승(三崇)등 각유치원의원아입장하여 김순권(金順銓)씨의개회사가잇슨후 다섯유치원원아 사백여명의련합체아즘인사(조선의맛)노래로 시작되여유치원은 차례차례로유희를 동경주등이십여종목을 재미롭게진행하엿는데 그중에 원아사백여명이 총출동하여습률(拾栗)경기하는광경은 실로무궁화맛동산을 일우엇스며 보모(保姆)들의련합유희는 만흔관중을 놀나게하엿다 오전오후 이십여종목을 무사히필하고 오후다섯시에폐회하엿는데 공전의대성황을일우엇다고한다

全州의立稻差押 二百三十餘件

法院執達吏事務所에 雲集하는債權者群

【全州】 십이일현재전주지방법원관내에만 아직 결실이완전치도못한논에 입도차압 건수가 이백삼십륙건이나된다는데 채권자들은 이러한수속을 하여노코도마음이 안노이는지 집달리사무소에 달여들어 채무자인소작인이나락을 베여가니 하로밧비 집행을 하여달라고 애원하는희비극이 한둘이아니라고한다

在滿同胞慰安 素人歌劇大會

【四平街】 철령조선청년회에서는 파반추석절을 리용하여재만동포를 위안키위하여 소인가극반(素人歌劇班)을조직하고개원(開原)을 경유하여 지난십일일밤칠시에 조선민회의 후원으로 당지만철구락부(滿鐵俱樂部)에서 가극대회를 개최한바 관람자는 무려사백명에 달하엿스며 만흔흥미를 주고성황리에 폐막하엿다고한다

黃州郡一手買受를 明治農會에依囑

價格低廉으로出廻量減少 兼二浦棉花共販狀況

【兼二浦】 면화공동판매실시후로 황해도내에서 지정매수인으로인가된 조선방적 회사에서는 황주군 내일수매수를 명치농회(明治農會)에의탁하엿다는데가격은 지난구일경과 시일보다도 더욱 저락되엿다하며출회량(出廻量)도런업시 격감하여가는일방으로 장차금후의 형세가자못 주목된다한다

生活難으로 鐵路에投身

【大邱】 십이일밤 열시반 시내덕산정 어백칠십삼번지 김성길(金成吉)의 아들 김석룡(金錫龍)(三)은 생활난으로 세상을 비관하야 대구신천(新川)철교에서 철도자살을 결심하고물진하는 긔차에몸을 던젓스나죽지는못하고 중상만 당하엿다한다

全朝鮮見童의 學藝品展覽會

球場에서開催

【球場】 녕변군구장공립보통학교에서는 금번동교의 개축과 개천구장(价川球場)간의 철도개통을 긔념키위하야 전조선각초등학교의 아동학예품 전람회를금월십오일 동교내에서 개최한다는바 출품점수가 천여점에 달하야 대성황을 예긔한다고한다

咸興飛行場 軍營으로移管

近近實現될듯

【咸興】 함흥본궁(本宮)비행장은 지난봄까지에 용지(십만평)정리공사를필하고 수차의시험비행까지행하야 불원간 실현될듯하다함은 긔보한바와가튼바 어번에동비행장은 군영(軍營)으로이관하게되어 이번은륙군측에서 기술관을파견하야 실지답사후 구체안을 작성할모양이라는데 본래부터도 륙군측에서 적극적으로 이문제를후원하여 오든터이나 금번 만주항공선로와 련락될 이북조선정긔항공로는륙군이관과동시에급속도로 실현될듯하다고 한다

扶餘郡世道面에 夜學成績良好

【江景】 부여군세도면(世道面)공보교장민계동(閔啓東)씨는 소화삼년사월삼일에 동교에착임한이래여러가지 사업을 한중에도 특히수업료를 내지못하는학생들에게 양계양돈 작업시에소작답을 어더 실습시긴수확으로 수업료를보충시기며 또는 학생들에게 도야지한머리씩을 자본으로 주는일까지잇섯다 하며 그외에한시도 쉬임이 업시인근초락의 문맹을 위하야십이삼세로 오십이세까지를 동보교작업실에 모아노코 보통학교정도의교유을 한다는데 교원은동교교장 민계동(閔啓東)정봉환(鄭鳳煥)한지석(韓智錫)공리귀(孔利鏞)케씨라하며 학생은현재오십여명인바 앞으로도 방이걸을따라배이상의 입학자가 잇스리라하며 세도면민 일동은민교장의장학멸에 감사함을 이기지못하야 지난구월이십사일에 민교장장학긔념비까지 세웟다고 한다

夜學設置 期成同盟組織

金捐多數逐至

【神戶】 신호시탄구(神戶市灘區)에거주하는 김성재(金性在)김용재(金容載)씨외몃몃사람의발긔로 우리부락아동을 위하야 야학이나마 설치코저야학긔성동맹회(期成同盟會)를조직하고 찬조회원을모집 하기시작하야 지난구월팔일부터 시일이얼마되지안는 오늘까지 회원이이백여명에 달하는바 입회금은오십전을 필두로 모집금액이불소하다하며 방금교사(校舍)교섭에몰두하고잇는바교섭이성공만되면 곳개학하리라한다

歸路에本社를見學한仁川支局主催의金剛山探勝團

水害救濟金 石峴面에配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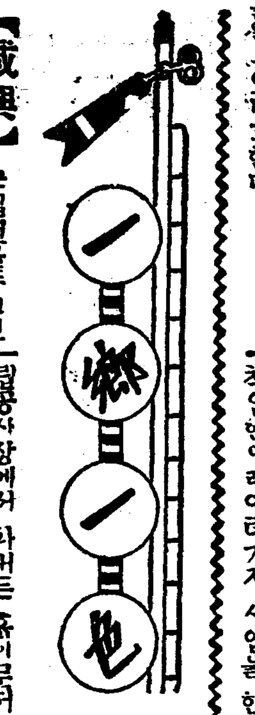
本報支局經由로

【金泉】 일、이、삼차의수재로우로인하야 김천지방에서는 유사이래 미증유의 대참해를입엇다함은 루보한바어니와 그중에서도 석현면(石峴面)의 피해가제일우심하야 그구제책을 연방으로 강구하고잇던바 지난십이일에는 수해구제회회장여병옥(余炳玉)본보대구지국장대리(?)맛본보김천지국장등씨에게수해구제금분배의협의를하여왓슴으로 본보김천지국에서는 석현면장리완중(李完重)씨와상의하여주지분급하기루하엿다

一、咸興

【咸興】 근십년을두고신축이권설을 권하든 함남도칭창사는이제야 운흥리(雲興里)신장소에 신축키로되여 얼마전에 총독부 토목과 영선계(營繕係)세기사(技師)가 래항하야 실지로시찰하고 귀성한후 곳본설계에착수하야 금년내로 긔공하기로되엿다는바 명년도에 중요한공사건부를 폐하고 명후년에 잔여의 공사를권부필할예정이라고한다

【羅津】 지난십월륙일오후구시 명지서송조(西松組)배럽공사장에서 파내든 흙이문허저서 인부일명이 현장에서즉사하엿다는데 그는본적을 강원도횡성군(江原道橫城郡)에두고로동생활하든권병환(權炳煥)으로지난사일에 당지에도착하야 전긔공사장에서 일을하고 잇섯는데 그날도 역시밤일을 하려나왓다가그와가티 무참한 최후를마친것인데 가런일하든 동무들이각각추렴하야장사하얏다한다



【井邑】 전북정읍군민대동는 대표자를통하야 금번정읍을순시하는우원총독에게 다음과가튼 사항의진정문제를 진정하얏다한다

一、井邑川護岸工事及架橋의件
二、道立病院設置의件
三、井邑農校昇格의件

【永平】 포천군영중면영송리(抱川郡永中面永松里)에거주하는 차부 신상학(申相鶴)(三二)은지난 구일뒤산으로 나무를 실려갓다가 실은짐에 치여즉사하엿다한다

【欲知島】 통영 욕지도 자부랑개(自富浦)에서 자화점을경영하는 제청찬(諸性贊)씨의상점에 지난팔일 오전네시경에 주인업는틈을타서 잠거두엇든열쇠를 깨트리고 드러가서백미와 기타주류등을 절취하야갓는데 손해는 십오원이라하며 당지주재소에서는 범인을 수색중이라한다

【群山】 지난십일오후다섯시오원 조선총독의 래군를긔회로일반 부민은 중구(樋口)부의원을 대표로지방 발전상중요망하야오든 다음과가튼 수요문제를지원하엿다한다

一、群山築港擴張
一、錦江鐵橋架設
一、板橫、鳥致院間鐵道敷設
一、群山軍營設置

【咸興】 명년도예산편성긔에들어온 함흥부에서는 오는십팔일부회의원상임위원회를개최한다는바 부의될 안건은다음과갓다고한다

一、高女移轉新築의件
一、書通學校校名變更의件
一、小學校學級增加의件
一、汚物掃除의件

主催京城保育學校綠羊會

京城保育 秋季音樂會

時日 十月十九日【木】夜七時半
場所 公會堂
入場料 五十錢、三十錢

出演樂士 蔡善葉 金元福 李永世 洪盛裕 安輔承 洪蘭坡 京城保育合唱隊

後援 朝鮮日報學藝部

有情 (16)

春園作　熊超畫

잠이 들어서 몃시간이나 되엇던지 나는 전화 소리에서 깨엿소。

『하이하이』

하고 전화 수화긔를 떼어든 나는 어안이 벙벙하엿소。 그것은 분명히 정임을 보아주는 간호부의 음성으로、

『남정임씨가 병이 중하십니다。 곳 들어 오십시오』

하는 전화엿소。

아까까지 괜찬턴 정임이가 웬일인가

하고 나는 시게를 보앗소。 어느새에 새벽 다섯시。 나는 옷을 주어입고 병원으로 달려갓소。

간호부실에들려서、

『남정임이가 병이 더첫서요?』

하고 물엇소。

『네 밤에 각혈을 만히 하서서 퍽중 하십니다。아이참 걱정되시겟습니다。 지금바로 속직하시는 선생이 다녀가섯습니다』

하고 인제는 낫치닉은 간호부는 친절히 대답해줍니다。

나는 정임의 병실로 가서 가만히 문을 열엇습니다。 방에는 아직도 간호부 하나가 남아서 한 손에 시게를 들고 한 손으로 정임의 맥을 집고 잇고 테이블 우에는주사를 하엿는듯한 져구가 어수선히 노혓소。 나는 눈을 감고 누엇는 허미한 전등빗체 비초인 정임의 얼골을잠간보고 그리고 K라는 전속간호부에게로 가서 자세한말을 물어보랑으로 정임의 침댓머리를 지내다가 류리다구에 철철넘는 빨간것을 보앗다。 그것은 이백그람 곱부로 셋은 될것이오!

K간호부는 내 귀에 입을 대고

『어제 밤 당신(나를 가르치는 말)께서 가신 뒤에 난상(정임)이 자꾸만 우서요。 우시면 병에 조치안타고 암만 말슴해도 자꾸만 우시는구먼요。 그러시더니 져가 잠한 잠이 들엇는데 난상이가를 부르시길래 보닛간 금세 커다란게 피를 쏘도섯구먼요』

하는 말이 우는 정임을 혼자 두고 K간호부는 잠이 몰어서 줌를 오륙시간이나 자긔가 정임이가 피를 만히 토할 때에야 비로소 깬 모양이엇소。 괘씸한 년 가튼년! 하고 나는 K간호부를 한번 노려보앗소。

맥보던 간호부가 나간 뒤에 나는 정임의 맥을 가만히 지퍼보앗소。맥이 끈허지지나 아니하엿나 하다십히 약하오。 정임의 입설에도 붉은 빗치 즐엇소。 정임은 아마 혼수상태인것 가탓소。

나는 가만히 정임의 손을 노코 정임의 잠을 깨오지아니하랑으로 가만가만히방 한면 구석으로 물러나와서 죽은듯한정임을 바라보고 잇섯소。

어려서 부모를 여희고 따뜻한 사랑도업는 남의 집에 얹혀서 눈치ㅅ밥으로자라난 정임、천상천하에 의지할 곳 업고 알아주는이 업는 정임、저것이 인제죽어버린다면! 하고 생각하면 애가키리게불상하엿소。 내가 온뒤에는 웬 동무들 헌테서 편지도 몃장 오고 선물도 멧가지 들어왓스나 그 편지 사연을보더라도 다들 제 편에서 외착 사랑이엇고 정임이편에서는 도모지 응하지 아니하엿던것이 분명하오。

『너조와 하는 남자 친구가 잇니?』

하고 어느날 내가 물을 때에 정임은、

『업습니다』

하고 퍽막하게 우섯소。 정임은 거짓말할애가 아님을 나는 맛소。

이 세상에 왓다가 여름가치 찬 속에서만 살고、부모의 정、형제의 정、애인의 정 부부의 정도 하나도 맛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정임의 정경을 생각해보시오。내가 통곡할 생각이 낫겟소? 아니 낫겟소?

補血·强壯 부루도-제

食慾增進

各帝國大學病院指定常備藥

爽凉한十月이야말로 지난炎暑中에일허버렷든 榮養을 補充改善하기에絶好의챤스이다 即榮養의手段에依하야 生活機能을自由로 矯正 助長 改變할도動物試驗에서 確立되여잇다 體蛋白의消耗에는반드시 蛋白質의養素로補充치안으면 안되는故로食物에서 蛋白質의量을一定에서 減少할수는업다 萬若必要量以下를 攝取한때에는 肝臟에貯置하야잇는蛋白을 第一에消耗하고싸라서 生命에影響이업는 筋肉을消費하야 이것을 補充하는것이다 故로이러할때 人體肝臟中의 重要成分과同一의集成을有하는『부루도-제』를服用하야 筋肉의消耗를防止하고 體重을增加하야 更히新生血液에依하는榮養의改善에 邁進함은初秋의 健康恢復에不可缺한方法이다

補血强壯增進劑　單味　부루도-제　(小瓶 二、二〇 大瓶 三、二〇)
神經性疾患特効劑　아루젠　부루도-제　(小瓶 二、三〇 大瓶 三、七〇)
腺病疾特効補血强壯劑　요-도　부루도-게　(小瓶 二、三〇 大瓶 三、七〇)
健胃補血强壯劑　기나　부루도-제　(小瓶 二、三〇 大瓶 三、七〇)
呼吸器系疾患特効劑　구아야코-루　부루도-제　(小瓶 二、六〇 大瓶 四、三〇)

活動의源泉 (小冊子) 申込次第無代進呈

大阪道修町
發賣元 株式會社 藤澤友吉商店
京城支店、京城西小門町

KB-18

長津郡의燕麥被害 七十七萬餘圓

草根木皮로延命을企圖 嚴寒에饑饉難免

【長津】 장진군일대 연맥(燕麥)피해는 루보한바와갓거니와 이제 그면별(面別)로 조사하여보면

面別	面積	被害高
郡內面	一,八〇〇町步	六九,二二〇圓
上南面	[illegible]	三〇〇,〇〇〇
中南面	[illegible]	一〇四,〇〇〇
新南面	[illegible]	一四五,〇〇〇
西閑面	一,七一〇	六八,〇七〇
北面	[illegible]	四九,〇〇〇
東下面	[illegible]	四二,〇〇〇
計	[illegible]	七七[illegible]

별항통보에 의하여 피해액이 칠십칠만오천원에 달한다 그런데 장진군일대는 고산지대로 방서취위가 심하여 지서 열마전부터 주민들은 산에올라 입에대일수잇는 풀과나무뿌리 혹은나무껍지를 벗겨다 추운겨울에먹을음식으로 준비하고잇스나 그것으로는도저히 연명해볼수업슬듯하야 일반주민은 극도의 생활불안을 늣기고잇다한다

開城府附近에 立稻差押五十件

支拂命令도三百八十件

【開城】 요사이 입반농민들은 열어가는 동록식을 바라보며 이안심에한숨을쉬일것이다 그러나 이엄마나 잘혹한일이냐 개성법원지청(開城法院支廳)에서는 매일 접수하는 가차압(假差押) 지불명령(支拂命令)장이 십여건식이나 된다는 지난십일까지통계를보면 립도차압(立稻差押)이 오십여건이며 지불명령이삼백팔십여건이라는데 전년동긔에 비하면약사할가량이나 감소되엇다하며 이압으로 엄마나증가될는지 자못주목중이라더라

咸北商工聯合 定總開催

【清津】 국제렬차개통을긔회하야 오는십오, 륙양일간 제구회 함북상공련합회(咸北商工聯合會)정긔총회를 청진공회당에서 개최한다는데 각지에서 제출할 중요의안은아래와갓다고한다

一、清津雄南間鐵道直通改修要望의件

二、羅南茂山間의二等道路改修速成要望의件

三、茂山白岩間[illegible]敷設工事要望의件

四、咸北에工業教育機關設置要望의件

五、北朝鮮에稅關本關設置要望의件

六、咸北道內에[illegible]當局에要望의件

七、咸北炭田保有鑛區의解除要望의件

八、京城發急行을雄基까지延長要望의件

九、豆滿江流筏年五十萬尺增加要望의件

開業醫宣傳紙問題로 蔚山刀圭界紛糾

「선전적비라」에 자긔를과장하고 다른의사를모욕하문구잇다고

【蔚山】 경남울산읍에서개업하고잇는구정공의(臼井公醫)는 지난 구월자긔병원을 신축하고 이전함에 제하야 선전삐라를산포하엿는데 그문구중에는 암연히자긔의 긔술을과장하고 동업다른의사들을무시모욕한점이잇다하야 동업자들은 크게분개하야서로레왕이 빈번하며 일반에잇서서도 론의가적지안흔바 특별히의사들은이를반박하는 경고문(警告文)을발송하는동시에 그의해답을요구하엿스나 일부의사에게사과가잇슬뿐 아모회답이 업슴으로다시케이단의방책을강구중이라는데 매우주목된다 고한다

清津에 五十錢假貨

【清津】 최근청진부내에 오십전짜리 위조은화가 류행되는바 출처는 간도방면에 위조단이잇서서 조선내에보내는듯한데 발견한 위조은은 한번보아서는잘알수업게 정교히되고 소화삼년이라고 쓰엿는바 보통보다가볍고 소리가달으다고한다

清津府尹 告發事件不起訴

【清津】 긔보=청진부윤고발사건은 이래사회적 영향이만으므로 청진서에서는 신중히진상을 조사하는일방 사건의해결에 노력하여오던바 지난 십이일조사를 최후로 맛을맛치고일건서류를 검사국에 송치하엿다는데 검사국에서는 석천검사정과 대정검사가 최후의타합을 한결과 증거불충분으로 불긔소 처분을 하엿다고한다

[illegible] 후십부시에 [illegible] 치입하얏스나 [illegible] 목적을 달치못하고 다시동원시십구일 오전두시경에 전주(田中)상점에 침입하야 맛침취침중인 전중을깨워 김명악은예비하엿던흉긔로 전중의두부를 란타하야 혼도시기고 다시두처오푼되는날카로운독긔로써어경경맥(頸靜脈)을 끈타하고 피해자방에서 현금삼십구원을 강탈한 사건이라한다

【蔚山】 [illegible] 류시회(柳始和)(二八)동지자전거수선업 김명악(金明岳)(三四)량인은 청진지방법원에서 강도예비급 강도살인죄로 검거된지칠개월만인 지난십이일에 예심종결이 되엿다는데 그범행을들으

安東新市場建設

總工費一萬八千圓으로 移轉은來月上旬頃

【安東】 오래동안안동읍민의 숙망으로나려오든시장이전(市場移轉)문제는 일반민중의열망하든바와가티 총공비 일만팔천원으로 삼개월전부터 안동읍서부동에잇는 엽묘을 메우고착착 신시장을 건설중이든바 지금은 거이완성긔에 이르럿스며 이전은래월상순경이라한다

教育機關에 巨額을寄附

故徐和日氏美擧

【筏橋】 천신만고로자수성가하여 거대한재산을모은 남선회사사장(南鮮會社社長)인서화일(徐和日)씨는 기방사업과 사회사업에 물질적정신적 공헌이만타는명성이 남조선일대에 자자하든동 씨의춘추가 칠십이넘엇슴으로 자연도태란 원칙의길을 밟을지음에 오천오백원이나 되는 적지안흔 금액을 교육긔관에던지고 지난팔일에 씨의자택인 고흥군동강면로동리(高興郡東江面魯東里)에서 분귀의길을떠나고말앗다 씨의 거친공덕은 영구적으로세간에서 잇치지안으리라는바 긔부한 금액과긔관은다음과갓다고한다

東江公普校 一千圓

筏橋公普校 百圓

筏橋松明學校 五百圓

筏橋幼稚園 五百圓

東江面內貧民救恤金 一千圓

同面魯東里墓本金 二百圓

同油芚里禮拜堂 二百圓

高興邑內養老堂 百圓

京城普成專門學校 五百圓

浦項雷管의出處 拾得物로判明

最初所持者嚴探中

【浦項】 루보=포항읍학산동(鶴山洞)여케조업(鮐製造業)문홍조방에서 발견된 뢰관이백여개의 출처에대하야 포항서에서는 뢰관의매득하야온예윤이(芮允伊)의답변에의하야 엄중조사한결과 영일군영산면룡흥동(迎日郡兄山面龍興洞)에 거주하는 박우숙(朴宇淑)이 가동리부근에서 습득한것이라는것은 판명하얏스나 그뢰관의소지자가 누구인지는상금묘연하다한다

汽車에서跳下라負傷

십삼일 오후열한시 오십분호남선(湖南線)상백이렬차가 강경(江景)역에 드러갈지음에 부여군량화면 원도리(扶餘郡良化面元道里)리은서(李殷西)의처 한성녀(韓姓女)(五?)가정거하기전에뛰여내리다가 얼굴에 처료이주일의부상을하얏다

同居不應으로 群衆이暴行

【華化】 본적을 봉화군 춘양면 권평리(川坪里)에두고 현주를동군소천면 고선리(小川面古善里)에둔 리희준(李喜俊)(二?)과동리(同里)리을룡(李乙龍)(三?)리승림(李昇林)(二?)정명달(鄭明達)(四?)정하경(鄭夏敬)(二?)등다섯명이 동리(同里)우삼희(禹三姬)(二?)가 자긔남편인 김인석(金仁錫)(三?)이 가지난구월이십일일에 유괴살해 사체유긔(誘拐殺害、死體遺棄)등죄명으로대구검사국에 송치되고 고독히잇슴을 긔회로 수차동거키를여 구하 엿스나 듯지안음으로지난칠일 오전한시경에 자긔잇든 우삼희를 꾀워가지고 리을룡이가 리희준에게 실어다주어 리는가진협박과 폭력

[illegible] 백륙십삼번지에 사는윤구석(尹求錫)(假名)(二?)동지정 (池町)백오십일번지최은배(崔恩培)(假名)(二?)동고려정(高麗町)구백륙십일번지 진창섭(秦昌燮)(假名)(二?)동만월정(滿月町)삼백십일번지 리은우(李銀雨)(假名)(二?)전긔세명이 작반하야가지고 부내서본정(西本町)에잇는 송월관(松月館)이라는 료정(料亭)에서기생두명을 불너가지고 진탕치듯 먹고놀고나서료리대를 지불할돈이 업서료정주인하고 시야비야 하든차에마츰개성서원이 순행하다가 이광경을 보고 그들네명을개성서에 인치하야 대강취조를 마치고후 생활양을 경계하기 위하야구류십일의즉결처분을하얏다고한다

無錢取食하고 留置場身勢

【開城】 지난십일일오후십일시경에개성부고려정(高麗町)오

湖南의小金剛 內藏山探勝

本後江景支局主催로

【江景】 호남의승지요조선의소금강이라는정읍내장산(井邑內藏山)을 탐승코자본보강경지국에서는 지난 십이일부터단원을모집하는중이라는데참가신입이자못만하오는이십일출발할예정이며 이에는정원이초과할것이 라는바그준비를갑을량조(甲乙兩組)로나누어 당일내장산을다녀오는단체와백양사(白羊寺)에서일박하고 돌아오는 단체를만들어서 참가단원의 편의를도아주리라한다

鎭海漁組에 暗影이低廻

理事選擧로紛糾 議員九名辭任

會議開催不能으로 重大事業未成

【鎭海】 경남진해어업조합에서는 동조합동상의원의 일부김계한(金桂漢)의 팔명이 지난달이십삼일에 돌연히련명사직(辭職)을 단행케되여 못처럼 소집케되얏슴으로 조합당국에서는 그사직의원들에게 사직철회권고를 구두혹은서면으로 수차하엿스나 사직의원들은 완강히듯지아니함으로 브득이 조합에서는지난삼일에그사직서를수리하는동시에 조합규정에의하야사직의원들의선거시차점자등을의원으로결정하는동시소집케 되얏던바 차의원회를 소집케 되얏던바 대중의 적극적 방해로필경이번의원회 엇지도 유회케되얏다는 그내용은 전리사(前理事)김상찬(金相讃)씨는지금으로부터 삼년전에 현조합에 취임케되야 이래 삼년동안 성심성의로노력한결과 취임당시의 빗투성이 조합의 존폐문제에 직면하얏던

조합의운명을 만회케하야

조합의리사는 [illegible] 일반이그조합의 존재를 인정케된안이라감독관청인 도당국에서도 [illegible] 동시에 해조합을지정조합(指定組合)으로승격시키는일방 창원군수산기수(昌原郡水產技手)정야수(正野修)씨를 리사로 겸임시키게되얏다 이와가티 리사문제가 의외의방면에결정되매 권리씨를 선거한 동상의원구명은 자긔들의선거한 리사리씨를 임명치아니한것에 분개하야 권리와가티위원회의소집에응치 안코련명사직을하게된것이래 그동안도당국에서 지난칠월삼십일부로 권무리사(權務理事)로 강부영태랑(岡部英太郎)씨를 임명케되야 리사문제는 완전히 결정되엇다 이상과가튼 관계로인하야 모처럼 긔초가화합되여가든

마대한영향 조합의장래에

에서도 굴지의조합이것을 공인하는바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지난륙월삼십일에 권리씨의 임긔만료인 긔회를타서 오원학삼십일 총대회에서 동연히 당시마산에잇는 리주한(李周漢)씨를 리사에선거케 된것이 분규의발단이되야 위원급조합원을 망라하야 반대찬성당파로갈니게되얏다 그러나 어업조합의리사는 총대회에서 당선되얏다고 곳리사가 되는것이안이라 도지사의 임명이잇서야 되는것임으로 조합에서는 수속을 밟지아니치수업게되야 도당국에 인가신청을 하게되얏던바 도당국에서는 두달이넘도록 각방면으로 충분한조사를한결과 지난팔월십일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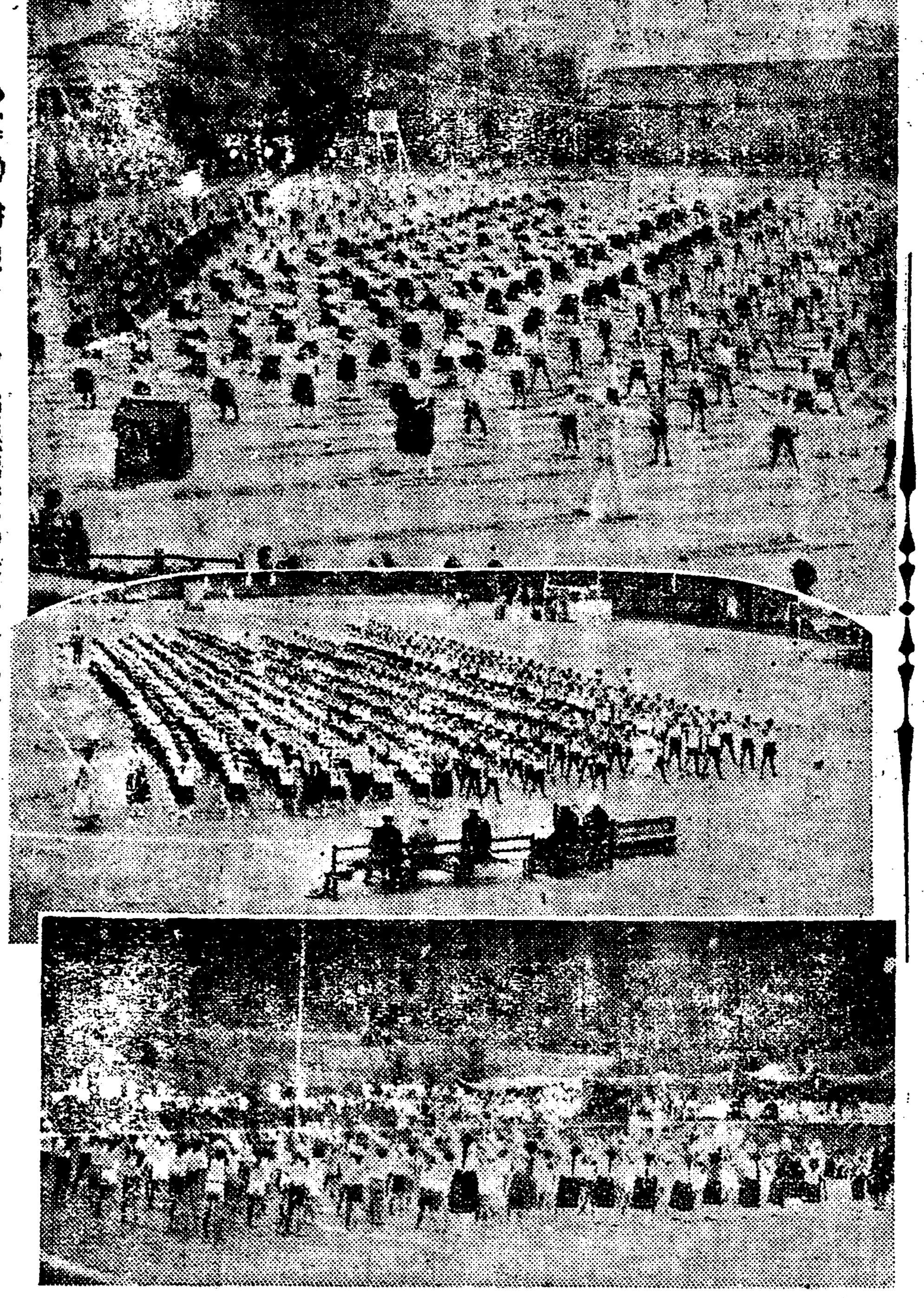
나리게되고 불연가체분여

몃치게될는안이라 조합의금년도 사업계획도 한가지실행치 못하게되얏스며 진해조합 인의동지에 해조합을지정조합

중심지인 경화동(慶和洞)의 발전과 일반조선인어민을 위하야 수십년래로 계획하여오던 방파제(防波堤)문제도 도지방비보조로 금년량년사업으로 이미결정되얏스나 조합의 의원회가 개최되지 못한관계로 아직까지 공사착수아가 수속도 하지못하게되야 금년사업이 래년에착수될지 의문이라는데 이에대하야일부몃사람의 책동으로 지방사업에까지 영향이밋치게 하는것은말이아니라하야 일반의 여론이자못놉다한다

長白縣代表上京하야 醫療機關設置를陳情

【惠山】 경남도 대안 장백현(長白縣)에는 최근조선인의이주가 비상이만흥나의료긔관(醫療機關)의설치가업스므로요즈음총독부에 도립병원출장소설치를통지에표자가진정하려경성에왓는데우생과에서는방금고려중이라한다



◇運動畫報……沙里院…公普校合同體操(上) 城津公普校聯合運動(中) 原平公普校運動會全景(下)

育英學院 十週記念音樂

本報支局後援

【安州】 본보아주지국후원과 육영학원(育英學院)의주최로 학원 십주년긔념음악회가 오는 십륙, 십칠량일가당지미락관(美樂館)에서열릴터이다 유영학원은지금 십여년전부터 안주읍동편리(安州邑東面觀里)에 설립되여 무산아동교육에 전심력을 다하야 만흔영재를양성하여왓다 금번십주년긔념으로 장래 사업을 일층확장 하고저한다는바 당일 출연할악사는 순안의명학교 남녀코러쓰대 삼십여명과 서양인 리를씨부부를 위시하야 독창우로청녕에 잇는숭전교수 차재일(車在鎰)씨외다수하아다의명성들이우에다가 당야에는 안주사

宣教師排斥事件 法的問題化

傷害治療費等을請求

聖堂內流血劇後聞

【清津】 청진옥정교회에서는 오래전부터 구례선선교사의 배척문제가 도화선이되여 갈량파가 대립되여 결국교회까지도옥정 중앙으로 분렬되는동시 교인과선교사간에 일대격투가발생되여 해결책이업다가 결국형사문제로 검사국에까지 간일도잇고 심지어 상해치료비에대한 손해배상청구까지 잇섯다고한다

清津强盜事件 豫終코公判附廻

【清津】 부녕군고무산 (富寧郡古茂山) 이백오십팔번지무직

◇慶州古蹟見學團 十四日에서…主日學校見學團一行

主校大會員九十餘名 慶州古蹟見學

◇……去十四日에

【大邱】 전조선주일학교대회 중앙주일학교에서 조직된경주(慶州)견학단 일행구십여명은 예정과가티 십사일오전일곱시차로 경주로가서 불국사 석굴암등을 일일히 견학하고 조선고문화에전하야 만흔늣김을 가지고 동일발열시에대구로 돌아와무사히해산하엿다

오든 [illegible] 그외에 [illegible] 그외가를 [illegible] 눈이에 분개하야 소관법원주재소(駐在所)에 고발하얏다 [illegible] 이라고한다

長城勞組事件 八名豫審廻附

十三名은釋放

【全州】 경찰의취조를맛치고 지난이십칠일경에 송국된 장성현동조합고리롱동조합 사건은 구류만긔인 십이일에 팔명만이 긔소 석방되고 남어지팔명은 예심에 회부되엿스며 상금계속취조를밧고잇든신명철(申明哲)의신명은 류치구개월만에지난십사일 오전 열시경에무사석방되엿다고한다

허헌(許憲)씨에 [illegible] 事件 (全州外大[illegible])

新義州에開催되는 西朝鮮蹴球大會

來十七日로期日決定

【新義州】 신의주고등보통학교 동창회에서는 그회사업으로서조선축구대회를개최하기로결정하고 그동안 준비에분망중이든바 오는십칠일에 모교교정에서제일회 대회를 열게되엇는데 서조선각지에서 만히 참가하기를바란다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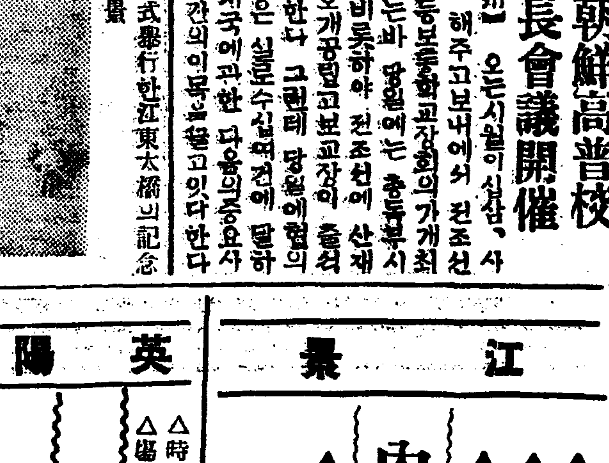
全朝鮮高普校 校長會議開催

【海州】 오는시월이십삼, 사양일간 해주고보내에서 전조선공립고등보통학교장회의가개최되리라는바 당일에는 총독부시학관을비롯하야 전조선에 산재한 십오개공립고보교장이 출석하리라한바 그런데 당일에협의할사항은 실로수십여건에 달하는바 시국에관한 다음의중요사항은세간의이목을끌고잇다한다

一、國體觀念을明徵하기위한修身及歷史教授上 特히注意할事項如何

一、時局에鑑하야 高普教育에잇서서 가장留意할點如何(平壤提案)

一、時局에鑑하야 學校振作을위하야 高普에現役將校를[illegible]



◇初漁式擧行한江東太橋의記念運動光景

養蠶傳習修了式

【晉泉】 례천군농회소속인례천녀자양잠전습소에서는 지난 십일오전십시에 제십구회 녀자양잠전습생 수료식이 잇섯는데 금번졸업생은 이십이명이라고한다

地方人事

▲李泉圭氏(大邱幼稚園理事長) 新任人事次去十四日本報大田支局來訪

▲諸田萬壽男氏(全州郡守)新任人事次去十三日本報全州支局來訪

▲立濟明氏(延專教授)校務蓄[illegible]하고去十三日入全本報全州支局來訪

江景	英陽
內藏山探勝團募集	**六面對抗陸上競技大會**
▲申請 十月十九日午前十二時까지	△時日 昭和八年十月十六日
▲出發 十月二十日午前五時發	△場所 石保公立普通學校
▲會費 (甲組)金四圓 (乙組)金七圓 (車賃宿泊費共)	◇主催 英陽郡教育會
▲探勝地 井邑、內藏山、大興里、白羊寺	◇後援 朝鮮日報社英陽支局
◇主催 朝鮮日報社江景支局	
◇後援 湖南線江景驛	

定州	安州	新義州
全定州少年運動會	**育英學院十週年紀念音樂大會**	**西鮮蹴球大會**
△時日 十月十七日	△時日 十月十六、十七兩日	△時日 昭和八年十月十七日
△場所 西面立岩學院	△場所 安州邑內美樂館	△場所 新義州高等普通學校球場
△申請 十月十六日까지立岩少年會로	◇主催 安州育英學院	△申請場所 新義州大東書林及本報新義州支局
◇主催 立岩少年會	◇後援 朝鮮日報社安州支局	◇主催 新義州高普同窓會
◇後援 朝鮮日報社定州支局		◇後援 朝鮮日報社新義州支局

林巨正 (202)

洪碧初作

熊超畵

배돌석이 二의十

남역에 나가서 술먹고 종일 놀다가 저녁밥까지 먹고 올내로 돌아와서 달빛아래서 옷에고 돌아다니다가 찬바람에 얼은몸을 녹이라고 성미에잇는 아는술집을 차저들어갓다 이배술은 비부노릇하기 전파 달려서 다음날 곡식으로 갓다갑는다하면 술을외상으로 어떠먹을수잇섯네 집에 돌아 아무조록 늣게가라고맘먹은까닭에 술집 뜨뜻한방에멋칠기게 안저잇다가 한밤중이 다된뒤에 비로소 넘어섯네 달빛만 밝고인적은 고요하나 아는사람을 혹시만날는지 몰라서 될수잇는대로 고샅길을걸어왓네 집에 갓가이 오며부러 발을 가만가만 떼어노코 아무 물우 살펴보앗네 행랑채에는 좋이 불빛이업는데사랑 대문은 빠금히 열려 잇데 내가 열린대문을보고 속으로 「올타 내와에 빠졋다」

왼손에들엇든 바짜메를 뒤창 아래다 내던지며 바른손에든 괴롱 곤아잡고 올룡우로 뛰어올라와서 뒤창문을 왈칵 열어젓치데 「이년 어떤놈을 데려다가 여구잣바젓느냐」 「번쩍의몸이지를 한독긔롱다 썩어노흘테다」 마당에 가득한달빛이 열어노흔창문으로 우려들어서 방안에불이업서도 허미하게보이는데 머리까지뒤어쓴 니불쪽에 듀통이 다란중만를 물천것을 집작하고 물쑤엇데 내가 바를 집어서 팔에걸치며 곳방안에 들어섯네 니불을벗기고 사내부터 잡아낼 오키기고 사내는 사지만 범필리고 리도 못하데 「이놈 네가 웬놈인데 집을 가두잣느냐」 독긔날로 바를 씀벅 끊은후 뒤에 독긔를 발미테노코 밧동강으로 사내를 뒷결박지우

생각하고 바로 우리방을드러치라다가 의롱으로라도 연장하나를 차져 가지기겸 사랑동청을 한번보고나 오라고 대문아페와서 대문짝을 몸으로 밀어 조금열고 들어와서 보니 자근사랑은 캄캄하고 큰사랑은 불이잇데 마루옷과 댓돌우에 서방님신발이업는것을 보고도 나는 잡간 주저하다가 들키면 도적놈두명쓸작정하고 큰사랑옷목의 지켜노흔덧문을열고 방안으로 들어갓네 아렛목에잇는 서방님자리는 비어잇고 벼룻집아페 아기만 누어자데 벼룻집이 눈에뜨일때 무슨생각하나가번개가티나서 나는 벼룻집에잇는필묵을 집어서 몸에지니고 방에서나왓네 사랑방에 가서 동쥐를 차저들고 또 무슨줄이나 바가업슬까하고 생각하다가 동자치서방에게 든든한 쇠바가잇는것을 생각하고 동자치방행랑으로 나와서 바를 자차가진뒤에 다시 우리행랑으로 왓비 우리행랑이란것 은 부엌한간 방한간인데 방에는 뒤에 조그만들창이 잇고 압페 외쪽되창이 잇슨 아랍 알뇌창으로 드리치면 방안에 잇는사람은 동안에든 줘와 달음이 검섯네 내가 가든이 불당아페 들어와서 귀를기우리고 엿듯너가 방안에 수작한듯수리가나는것을 듯고

는데 기집이 그동안에 넘어 나서 살그머니 독긔를 집으러고하테 내가 아것을 보고 발길로 기집을 차버린뒤에 다시 독긔를 집어서 바를 도막하고 기집마저 어다가 뒷결박을지웟네 기집 한중동내가지고 맹낭해서 종이 사내평반보담 가만이잇지안 떨기는떨면서도 손을 왐으로 코 결박지우는 사이 눈을 둘러 엄어메라고 애를 쓰데 둘을 뒷결박지우고도 바가 만히 남아서 남은바로 남녀의두몸을 한데 친친감어노핫네 사내짱 반이 그동안 정신을 차린모양이라 엘리는목소리나마 똑똑하게 「용서해 내야」 하고 말하데 나는 번연히 알면서도 누구인지 물으은체 하고 「내라니 누구냐」 하고 나직이 무지젓네 「나를 몰라 나야」 「어니 서방님아니요」 이게 무슨짓이요」 「잘못되엇네」 「가만잇소 동동켜노쿠 불러 주리다」 「뭇결것업시 살려주게 자네가 무슨짓을하든지 내가다 들어줄테니 얼른살려주게」 「동켜노쿠 이야기합니다」 내가 열어저친창 밧안에 문을 다친뒤에 화로에 불씨를 피웟네